

축구 국대에 K리거 75%

연령 구분 없이 국가대표 75명 중 K리거 56명

24세 이하팀 이호재·22세 이하팀 안재준 눈길

한국 축구 A대표팀과 24세 이하 대표팀 22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 중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 구분 없이 현 국가대표 총 75명 중 올 시즌 K리거는 56명(75%)이다.

K리그 1부와 2부를 통틀어 25개 구단 중 5개 구단(K리그 1 수원FC, K리그 2 고양, 충북청주, 충남아산, 천안)을 제외한 20개 구단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발탁됐다. 울산과 전북이 각각 7명, 뒤를 이어 서울이 6명을 배출했다.

성인 대표팀인 A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은 5명을 보낸 전북이다. 24세 이하에는 서울 이랜드가 3명, 22세 이하에는 서울이 4명을 보냈다.

A대표팀 선수 중 현재까지 이번 시

즌 K리그에서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이상호(서울), 송민규, 조규성(전북)까지 3명이다.

중앙 수비수 조유민(대전)은 인터셉트 27회로 K리그 전체 선수 중 공동 2위, 클리어링 47회(8위)로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김영권(울산) 역시 인터셉트 27회로 조유민과 함께 공동 2위, 전체 패스 성공은 202회로 9위, 이 중 전진패스 성공은 131회로 1위다.

측면 수비수 김태환(울산)은 공격지역 패스 성공 62회로 1위다. 조규성은 키패스 8개로 공동 3위, 이기제는 크로스 성공 8개로 공동 2위다.

24세 이하 대표팀의 경우 이호재(포항)가 K리그 4경기에서 3골로 가장 눈에 띈다. 이호재는 4경기 합계 출장 시간 44분 동안 3골을 터뜨리는 등 특급조커로 활약 중이다.

엄원상(울산)과 고재현(대구)은 개막 라운드에서 득점에 성공했다. 조상준(경남) 역시 가장 최근인 4라운드 충북청주전에서 시즌 1호골을 신고했다.

수비수 중에서는 조진우(대구), 이상민(성남)이 소속팀에서 전 경기, 전 시간 출장하며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경남 골키퍼 고동민은 올 시즌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했다.

22세 이하 대표팀 중 주요 선수는 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 중인 안재준(부천)이다. 안재준은 부천의 최근 3연승을 이끌었다.

엄지성(광주) 역시 4라운드 인천전에서 시즌 마수걸이 골에 성공했다. 황재원(대구)은 데뷔 첫해였던 지난 시즌 34경기에 나와 1골 3도움으로 깜짝 활약했고 올 시즌 역시 전 경기, 전 시간 출장 중이다. 이태석(서울)도 현재까지 전 경기, 전 시간 출장에 왼쪽 발악이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태석은 3라운드 울산전에서 나상호의 득점을 도왔다.

/뉴시스

손흥민, 클린스만호 주장 완장 계속 찬다

축구대표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축구대표팀의 주장도 변함없이 손흥민(토트넘)이 맡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주장 완장을 찬다"고 말했다.

간판 손흥민은 2018년 9월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부임하고 줄곧 주장 완장을 차고,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 16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강 진출에 일조했다.

A매치 108경기에서 35골을 기록 중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구단의 선배 사이로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빅 팬"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국

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감독님도 오랜 기간을 보고 선임을 한 것이라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4일 오후 8시 울산문수구장에서 콜롬비아,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뉴시스

국립서학아트센터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김현영

김성석

최수정

손은영

지유라

구상희

김정현

황은미

관홍수

파아



2023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배드민턴 대표팀 인세영 선수와 여자복식 우승 조 공희용, 김소영 선수 및 김학근 감독,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전영오픈 金 2개 수확 배드민턴 대표팀 금의환향

2000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성과 재인

세계 최고 권위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21일 금의환향했다.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안세영과 2017년 장예나 이후 6년 만에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김소영-공희용 조를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 외에 여자 복식 은메달을 딴

이소하-백하나 조, 혼합 복식 은메달을 수확한 서승재-채유정 조, 혼합 복식 동메달을 딴 김원호-정나은 조도 환영 인파 속에 귀국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2개씩 딴 것은 2000년 남자 복식 김동문-하태권 조와 혼합 복식 김동문-라경민 조의 금메달, 남자복식 이동수-유용성 조와 여자 복식 라경민-정재희 조의 은메달에 이어 23년

만이다.

이번 전영오픈 성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40년 만의 노메달 수모를 씻은 대표팀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7월 파리 올림픽 메달을 향해 댕다.

이 밖에 21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2023 스위스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023 베트남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소식을 전할지 기대된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은 21일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대회협력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국기 태권도 활성화 대회협력위원 위촉

태권도재단, 정·재계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은 21일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대회협력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재단 대회협력위원회는 김길영 KD 도시개발 주식회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손경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감사와 장태수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정승열 서울특별시관광특보 등 3명을 부위원장으로, 고종우 아시아투데이 상무이사, 김효정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유호운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조직위 사무부총장 등 태권도를 비롯한 정·재계, 예술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위원회는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재단·태권도원 발전, 대회협력사업 발굴 및 진행 등에

대한 자문과 활발한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대회협력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각계각층 전문가인 위원님들과 함께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에 대회협력위원들이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위원님들이 태권도와 재단·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과 논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역도연맹회장배 동호인 대회' 진안서 개최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고원역도훈련장에서 최근 2023 전북역도연맹회장배 동호인 역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1팀, 약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전북역도연맹이 주최한 대회는 인상, 용상 합계 총 3개 종목으로 남자부(10체급)와 여자부(10체급)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 체급별 기록을 고려하여 체급대비 우수성적

을 인정하여 최우수선수를 선정했으며 진안역도스포츠클럽의 여자 50kg급 임하랑 선수, 아이칸(광주) 소속의 남자 88kg급 김한동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진안 역도스포츠클럽은 일반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지도자 가르침으로 역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선수를 배출하는 등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프로탁구리그 새 우승컵 공개

女 사라예보컵 · 지바컵
男 서울컵 · 베이징컵

한국프로탁구리그(KTTL)의 새 우승컵이 공개됐다.

KTTL위원회는 21일 "프로탁구 두 번째 시즌인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를 맞아 우승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그별 우승컵에는 한국 탁구 역사에 남을 우승 사례가 새겨졌다.

여자 프로구단들이 노리는 코리아리그 우승컵은 건국 후 첫 기종목 세계 제패인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 우승(1973년)을 기념해 약칭 사라예보컵으로 정해졌다.

남자의 경우 코리아리그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을 상징하는 서울컵, 내셔널리그는 1990년 아시안게임을 나타내는 베이징컵으로 명명됐다. 우승컵에는 해당 대회 우승 장면이 새겨졌다.

우승컵 상단에 레이저 3D 프린팅으로 탁구 선수와 KTTL이 조각됐다. 트로피 중앙에는 남녀 한국 탁구 100년 사주요력이 담겨있다.

1924년 경성일일신문사가 연 제1회 광풍대회, 그리고 유명 수목화가이자 탁구팬인 이광춘 화백(경기도 교수)이 특별히 쓴 붓글씨 등이 새겨졌다.

시즌 우승팀은 1년간 트로피를 보관한다. 우승팀은 새로운 시즌 전에 반납하는 대신 모조품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개막한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지난 2월 25일 시작된 남녀 내셔널리그는 5월 10일까지 정규리그를 소화한 후 5월 11~16일에 포스트 시즌 경기를 열 예정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